

#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The Effects of Parental Rejection Recalled by Undergraduate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1차원고접수: 2025.02.19. 수정원고접수: 2025.06.06. 최종게재결정: 2025.06.20.

장하은<sup>1</sup> · 이운경<sup>2</sup>

<sup>1</sup>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sup>2</sup>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Jang, Ha Eun<sup>1</sup>

Lee, Woon Kyung<sup>2</sup>

<sup>1,2</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 ~ 25세 국내 대학생 총 308명(남 = 138명, 여 =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거부민감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각각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순차적으로 거부민감성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순차적으로 거부민감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아동기 시절 부모로부터 경험된 거부가 성인 이행기인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였으며,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서로 다른 기전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대인관계문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rejection recalled by undergraduate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two factor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Data were collected from 308 undergraduate students (138 males and 170 females) between the ages of 19 to 25 using a questionnaire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to examine the pathways through which parental rejec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rejec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 of undergraduate students. Second, parental rejection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interpersonal problem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ird, paternal rejection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 through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while maternal rejection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 through both self-defensive ambivalence and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Finally, parental rejection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interpersonal problem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However, the direction of influence of two factor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interpersonal problem differed, with self-defensive ambivalence having a positive effect and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having a negative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importance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during childhood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s an active suppressive mechanism that may play as an adaptive role in the collectivist context and cultural aspect of South Korea.

**Keywords** parental rejection,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terpersonal problem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3)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이운경 (Lee, Woon Kyung)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lwk@ewha.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적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서(Arnett, 2007), 진로 탐색, 취업 및 독립 준비 등 다양한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구조화된 환경에서 입시 위주의 생활을 하다가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맞닥뜨리곤 하는데, 특히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우수희, 송근혜, 조규판, 2012). 또한, 사회적 생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지며(정태연 등, 2019), 이때 스스로 상대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대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권석만, 1995; 김성희, 박경희, 2008). 실제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질이나 만족도가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신체화 등과 같은 정신건강(원미화, 신선화, 2019; 정성란, 202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순희, 2024), 학업 소진(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 이상민, 2020), 대학생 생활 적응(김윤영, 최윤정, 현혜순, 2024) 등과도 관련됨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는 대학생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 혹은 부적응적 행동 패턴(Leary, 1957) 등으로 정의된다. Bowlby(1969), Horney(1945), Sullivan(1953) 등의 이론은 생애 초 개인이 경험한 가정환경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애착이론 및 사회학습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인관계 수용-거부 이론(Interpersonal Acceptance-Rejection Theory(IPAR Theory); Rohner, 1986; 2021)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

인기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 이론은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위로, 지지, 보살핌, 관심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를 가진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Rohner, 1975). 구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 등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수용 받으며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한 개인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심리적·행동적으로도 잘 적응하는 반면, 지속적인 거부를 경험해 온 개인은 의존성, 적대감·공격성, 정서적 무감각,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적절감 등 특정 형태의 부적응적 성격 및 행동 특성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러한 특성들은 이후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ohner, 1986). 이와 같은 맥락의 경험적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경험한 부모의 민감한 돌봄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 이성 관계 능력까지 종단적으로 예측하였으며(Raby et al., 2015),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언어적 학대, 무시와 같은 역기능적 양육을 경험한 성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Doom, McCollum, Silberschatz, Kealy, & Snyder, 2021).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동기를 회상하여 보고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현재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본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자녀 또는 부모가 지각하거나 주관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측정하는 현상학적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관찰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적 관점이다(Rohner, 1980). 이는 부모가 인지하거나 실제로 관찰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상

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Goldin, 1969; Schaefer, 1965). 대인관계 수용-거부 이론을 제안한 Rohner(1986)는 “부모가 적대적 혹은 수용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부모의 행동이 아닌 평가하는 사람(즉, 자녀)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Kagan(1978)의 주장을 인용하며 현상학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대학생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고 형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과거 양육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현재의 심리 및 행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에 주목하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모호한 상황에서 거부를 더 쉽게 지각하여 과잉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하며(Downey & Feldman, 1996), 생애 초기 양육자의 양육방식에 따라 아동이 각기 다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는 애착 이론(Bowlby, 1969; 1973; 1980)에 그 기초를 둔다(Feldman & Downey, 1994). 애착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인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타인은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이후에도 타인과의 애착 관계를 거부하는 등 부정적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Bowlby, 1973). 즉, 생애 초기 양육자에 의한 반복적인 거절은 타인의 거절에 대한 개인의 불안과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Feldman & Downey, 1994). 또한, 거부민감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생애 초기 노출된 가정 폭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경향이 있으며(Feldman & Downey, 1994), 아동기 이후의 거부 경험이 거부민감성의 강도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러한 주장은 생애 초기 경험이 이후 뒤따르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애착 이론의 관점과 일치한다(Pietrzak, Downey, & Ayduk, 2005).

동일한 맥락으로, 대인관계 수용-거부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지속적인 거부를 경험한 자녀는 자신이 타

인에게도 거부당할 것이라는 왜곡된 정신적 표상을 발달시키며(Rohner & Lansford, 2017),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지나친 수준으로 반응하는 거부민감성을 보일 수 있다(Khaleque, Uddin, Hossain, Siddique, & Shirin, 2019). 특히 Rohner(2021), Eisenberger(2015) 등은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린 시절 경험하는 외상이 아동의 뇌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이후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적응에도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기억과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해마, 전두엽 영역의 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편도체는 자극의 정서적 의미를 해석하여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촉발하는 기관으로, 특히 공포 감정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eDoux, 1998). 해마는 서술적(선언적) 기억 형성 및 상황 맥락에 따라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Birn, Patriat, Phillips, Germain, & Heringa, 2014; Cozolino, 2017), 전두엽은 학습, 기억, 자기 조절 등 고등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편도체의 작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LeDoux, 1998; Cozolino, 2017). 선행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정서적 학대나 과도한 체벌, 혹은 학대는 아닐지라도 민감성이 낮고 거친 양육을 경험한 성인에게서 편도체, 해마, 전두엽의 부피 손실 및 기능 이상의 가능성(Souza-Queiroz et al., 2016; Suffren et al., 2022; Tomoda et al., 2009; van Harmelen et al., 2010)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동시에, 20대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전두엽 일부 영역의 부피가 더 작고(Sun et al., 2014), 거부 관련 자극 처리 시 전두엽 활성화 수준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ross, Egner, Ochsner, Hirsch, & Downey, 2007). Rohner와 Lansford(2017)는 여러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들이 아동기 시절 부모의 거부적 양육을 경험한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 민감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들이 회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도 높다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구세정, 송미경, 2018; Erozkaz, 2009; Ibrahim, Rohner, Smith, & Flannery, 2015).

한편,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거부는 누구나 겪게 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거부 경험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Levy, Ayduk, & Downey, 2001).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사소한 거부 상황 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부 신호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친밀감을 추구하거나 분노 혹은 회피하는 등 부적절하고 방어적인 행동으로 대처한다(Levy et al., 2001). 이러한 부적절한 대처 전략은 또다시 타인의 거부를 초래하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Levy et al., 2001).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초기 성인 및 대학생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공격적이며(Du et al., 2022; 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자기침묵 경향성을 보이고(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더 높은 수준의 대인불안(김나영, 조유진, 2009) 혹은 대인관계문제(윤희경, 윤형식, 2014; 정소현, 양남미, 2018)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이 현재 시점에서 부모의 돌봄 수준이 낮다고 지각할수록(김지윤, 진미경, 2019), 혹은 과거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김윤지, 최가희, 2020) 더 높은 수준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으나,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문제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부모 중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빙효은, 김은정, 2021; Khaleque et al., 2019), 각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그 표현을 갈등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정서표현 양

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mmons, 1989)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변인이다. 먼저,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맥락을 반영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이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정서표현에 대한 무능감을 느끼거나 거절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표현을 갈등하고 억압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인상 관리를 위해 표현을 조절하려는 ‘관계관계적 양가성’으로 나뉜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전반적으로 정서표현의 부적응적 측면을 나타내는 개념이나,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관계관계적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표현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적응적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관계관계적 양가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달리 대인 간 민감성, 우울, 적대감 등과 상관 없이 상관의 크기가 작고(최해연, 민경환, 2007), 대인관계능력(이효원, 정남운, 2021)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두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인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는 양육방식, 정서표현형, 자녀와의 애착, 부부 갈등 등을 통해 가정의 고유한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Siegler, Saffran, Eisenberg, DeLoache, & Gershoff, 2003). Mongrain과 Vetteese(2003)는 부모가 생애 초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표현을 제재 혹은 위협하거나, 수치심 혹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 경우 자녀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발달시키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황민정과 김윤희(2018)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비밀관성, 과잉 기대 및 간섭, 학대와 방치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서 조절이나 정서표현성 등에 대한 중단 연구들은 아동기에 형성된 정서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송하나, 최경숙, 2010; Lucas-Molina, Quintanilla, Sarmiento-Henrique, Martín Babarro, & Giménez-Dasí, 2020; 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이후 발달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학생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간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 대학생 혹은 20 ~ 30대 남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불안(박서정, 강문선, 이영순, 2019; 백수현, 이영순, 2013), 관계적 공격성(윤혜성, 박지선, 2024),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Wang, Zheng, Wang, & Li, 2022) 등 대인관계 관련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 내 갈등 상황에서 정서표현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며(Mongrain & Vetteese, 2003), 그 결과 억압된 정서가 때로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우회적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유지, 2022). 또한,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인 교류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개인은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Emmons & Colby, 1995), 이처럼 해소되지 못한 감정에서 비롯된 내적 긴장감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상황을 더욱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박서정 등, 2019; 백수현, 이영순, 2013).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손일영, 김해란, 2018;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김용희, 2014; 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를 고려할 때,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외상이나 학대 혹은 정서표현성과 같은 일부 요소가 아닌 보다 일반적인 거부적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더불어, 정서표현 양가성을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이경희와 김봉환의 연구(2010)에서는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연구 참여자 중 일부 집단의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모든 참여자 집단의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사한 맥락으로, 이진화와 양난미의 연구(2018)에서도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대학생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난 바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 관계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은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태도나 동기, 신념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최해연, 2008; Joseph, Williams, Irwing, & Cammock, 1994). 즉 개인의 정서표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표현의 억제라는 행동에 선행되는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최해연, 민경환, 2005),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여기거나 정서표현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개인은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고자 할 것이다(Joseph et al., 1994). 정서 이론가인 Kennedy-Moore와 Watson(1999)은 정서표현을 개인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자 가치 지향적 행동으로서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타인의 관심 혹은 주목을 얻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표가

있는 개인은 정서를 표현하려 할 것이며, 반대로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 등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길 원하거나 늘 평정을 유지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개인은 정서표현을 가능한 한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서 조절의 전략으로서 ‘억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거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과 관련될 수 있다(Gross & John, 2003).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한 여러 경험적 연구(김태연, 최은실, 2022; 김혜원, 이지연, 2020; 송준현, 백용매, 2018)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각각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이 확인된 바 있다(김진이, 김향숙, 2016).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선행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발달하는데 있어 생애 초 경험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들은 존재하나(유지은, 박성옥, 2017; 최혜경, 장유진, 2020), 정서표현 양가성을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한 근원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기 양육경험을 포함하여 네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 또한 드물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탐색한 기존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구분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가구 증

가, 핵가족화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나성은, 2014),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Leidy, Schofield, Parke, 2013; Parke, 2000).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회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선행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거부민감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순차적으로 거부민감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만 19 ~ 25세 남녀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138명(44.8%), 여학생 170명(55.2%)이었으며,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97세( $SD = 1.76$ )였다.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중층으로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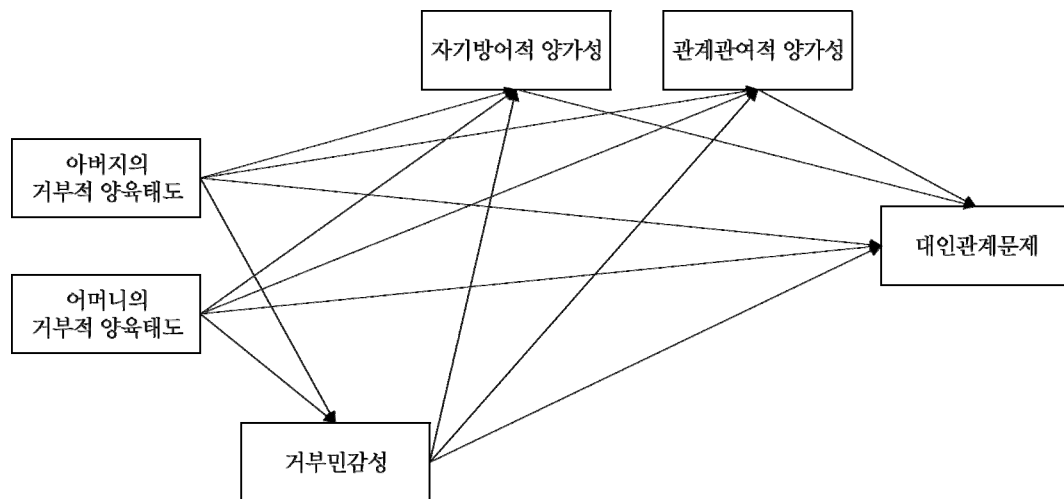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모형

사람이 185명(60.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층 60명 (19.5%), 중상층 58명(18.8%), 하층 3명(1%), 상층 2명 (0.6%) 순이었다.

높을수록 아동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거부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아버지 .92, 어머니 .89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Rohner와 Khaleque(2005)가 개발한 ‘성인용 부모 수용-거부 설문지 단축형(Adult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Adult PARQ: Short form)’의 한국어 번안본을 원저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인기 자녀가 아동기(만 7 ~ 12세)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상하여 아버지·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축형의 경우, 온정과 애정 결여(8문항), 적대감/공격성(6문항), 무관심/방임(6문항), 미분화된 거부(4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화나셨을 때 나한테 심한 벌을 주셨다(적대감/공격성)’,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셨다(미분화된 거부)’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 ‘거의 항상 그랬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온정과 애정 차원의 8문항과 무관심/방임 차원 중 1문항을 역채점한 후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점은 최저 24점 ~ 최고 96점으로, 총점이

### 2) 거부민감성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Levy 등(2001)이 제시한 거부민감성 모델의 과정적 접근에 기초하여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개발하고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5였다.

### 3) 정서표현 양가성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하고 재구성,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13

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을 구분하였으며, 총 21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자기방어적 양가성)’,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관계관여적 양가성)’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양가감정)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92, 관계관여적 양가성 .83, 전체 .93이었다.

#### 4) 대인관계문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홍상환 등(2002)의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Horowitz 등(1988)에 의해 개발된 ‘대인관계문제 척도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Alden, Wiggings와 Pincus(1990)이 ‘대인관계문제 원형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 IIP-C)’로 보완하고, 이를 김영환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KIIP-C)’의 단축형이며, 총 40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 해주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7이었다.

####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대학생 자녀의 성별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Hussain, Alvi, Zeeshan, & Nadeem, 2013), 거부민감성(유고은, 방희정, 2011; Giovazolias & Paschalidi, 2022), 정서표현

양가성(이하나, 2006), 대인관계문제(정은, 윤현경, 정미라, 2022; 한가희, 이인혜, 2016)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박소은, 남은영, 2010; 송희원, 최성열, 2012), 정서표현 양가성(김병진, 김현아, 2020), 대인관계문제(조성경, 최연실, 2014; 하태희, 2019) 등 주요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쳤으며(ewha-202302-0010-01), 2023년 3월 중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 대학원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설문 양식을 게시하거나 대학생 지인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제공하고, 이를 숙지 후 동의하는 이들에 한하여만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에 앞서 아동기(만 7 ~ 12세) 시절 부와 모 모두와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스크리닝 질문을 추가하여 양쪽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310부 중 스크리닝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거나 대학생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거하여 총 308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AMOS 22.0 프로그램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개별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팬텀변인은 모형의 적합도나 기타 다른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의 변수로, 간접 효과가 다수 포함된 모형에 대한 AMOS 분석에서 특정 변수에 관한 추정치가 직접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서 활용될 수 있다(배병렬, 2017).

### III. 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자료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각 변인의 왜도 범위는  $-1.47 \sim .73$ , 첨도 범위는  $-1.97 \sim .17$ 로 나타났으며, 왜도 및 첨도 값  $-2 \sim 2$ 의 정규성 기준(George & Mallery, 2019)을 충족하였다. 한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Durbin-Watson 값을 통해 연구변인들의 오차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는 10 이상을 공선성의 기준으로 삼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접하면서 0 또는 4에 가깝지 않을 때 연구변인들의 오차 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 자료의 분산팽창지수는  $1.01 \sim 3.68$ 으로 10보다 작고 Durbin-Watson 값 또한 2.0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인(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주요 연구변인인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통제변인인 성별과 주요 연구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r_s = -.06 \sim .02, p > .05$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12, p < .05$ ). 또한, 통제변인을 제외한 모든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_s = .14 \sim .81, p < .05 \sim .001$ ).

#### 2. 경로분석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하여, 흔히 구조방정식모형(SEM)이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강점을 가지나, 경로분석 또한 변인 간 인과적 관계의 타당성을 규명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배병렬, 2017). 이에 살펴본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53(df = 1, p = .615)$ ,  $\chi^2/df = .253$ , GFI = 1.000, NFI = 1.000, TLI = 1.014, CFI = 1.000, RMSEA = .000(90% CI = .000, .120)으로,  $\chi^2 = .000, df = 0$  값을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308)

| 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성별 (남학생 = 1)       | -     |                   |        |        |        |        |        |      |
| 2. 경제적 수준 (중층 이상 = 1) | -.03  | -                 |        |        |        |        |        |      |
| 3. 부 거부적 양육태도         | .01   | -.06              | -      |        |        |        |        |      |
| 4. 모 거부적 양육태도         | -.04  | -.003             | .76*** | -      |        |        |        |      |
| 5. 거부민감성              | -.01  | -.12*             | .45*** | .42*** | -      |        |        |      |
| 6. 자기방어적 양가성          | -.01  | -.10 <sup>+</sup> | .41*** | .44*** | .80*** | -      |        |      |
| 7. 관계관여적 양가성          | .02   | -.09              | .16**  | .14*   | .72*** | .75*** | -      |      |
| 8. 대인관계문제             | -.06  | -.08              | .59*** | .66*** | .74*** | .81*** | .52*** | -    |
| M                     | .45   | .90               | 45.33  | 42.95  | 2.63   | 2.67   | 3.11   | 2.30 |
| SD                    | .50   | .40               | 13.83  | 13.67  | .93    | .84    | .81    | .75  |
| 왜도                    | .21   | -1.47             | .39    | .73    | .01    | -.17   | -.14   | .14  |
| 첨도                    | -1.97 | .17               | -.79   | .11    | -.68   | -.87   | -.02   | -.97 |

<sup>+</sup>p < .10. \*p < .05. \*\*p < .01. \*\*\*p < .001.

가지며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 Raykov, Lee, Marcoulides, & Chang, 2013)에 근접한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표 2, 그림 2 참조). 먼저, 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eta = .05, p > .05$ ),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9, p < .001$ ).

다음으로 간접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부와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모두 거부민감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부:  $\beta = .29, p < .001$ ; 모:  $\beta = .20, p < .05$ ),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2, p < .001$ ). 둘째, 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방어적 양가성( $\beta = -.04, p > .05$ )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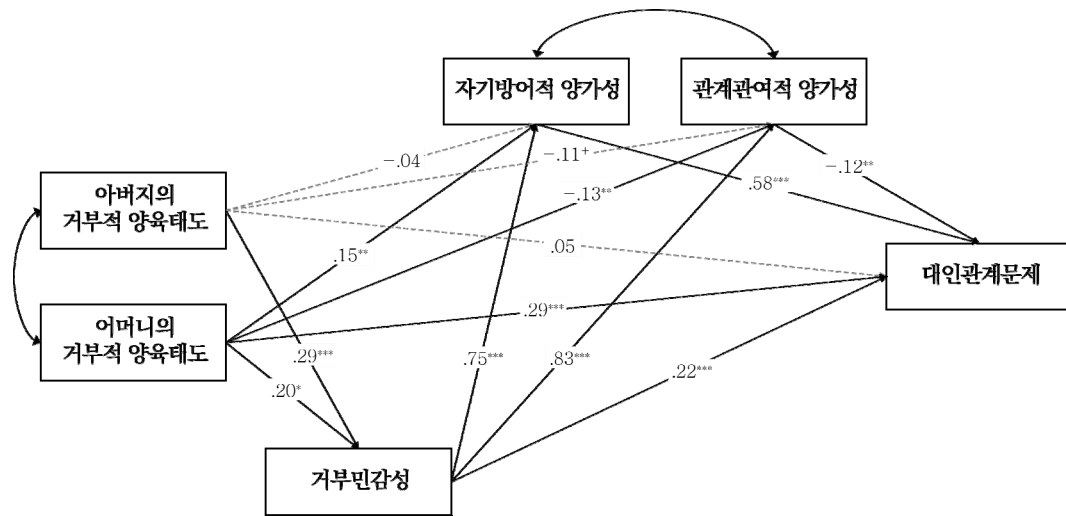
계관여적 양가성( $\beta = -.11, p < .10$ )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 유의성에 근접하였다. 반면,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beta = .15, p < .01$ )을 미친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3, p < .05$ ). 또한, 정서 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은 대인관계문제에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beta = .58, p < .001$ )을 미친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2, p < .01$ ). 마지막으로, 부와 모의 거부적 양육태

표 2.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308)

| 변인 간 경로                   | B     | $\beta$ | S.E. | C.R.               |
|---------------------------|-------|---------|------|--------------------|
| <b>통제변인과 주요 연구변인 간 경로</b> |       |         |      |                    |
| 성별 → 대인관계문제               | -.05  | -.04    | .04  | -1.38              |
| 경제수준 → 대인관계문제             | -.01  | -.004   | .05  | -.14               |
| 성별 → 거부민감성                | -.01  | -.01    | .09  | -.15               |
| 경제수준 → 거부민감성              | -.23  | -.10    | .12  | -2.00*             |
| 성별 → 자기방어적 양가성            | .002  | .001    | .06  | .03                |
| 경제수준 → 자기방어적 양가성          | -.04  | -.02    | .07  | -.50               |
| 성별 → 관계관여적 양가성            | .04   | .02     | .06  | .56                |
| 경제수준 → 관계관여적 양가성          | .02   | .01     | .08  | -.50               |
| <b>주요 연구변인 간 경로</b>       |       |         |      |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대인관계문제       | .003  | .05     | .002 | 1.32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대인관계문제       | .02   | .29     | .002 | 6.81***            |
| 거부민감성 → 대인관계문제            | .18   | .22     | .04  | 4.69***            |
|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52   | .58     | .04  | 11.72***           |
| 관계관여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11  | -.12    | .04  | -2.70**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02   | .29     | .01  | 3.76***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01   | .20     | .01  | 2.56*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자기방어적 양가성    | -.002 | -.04    | .003 | -.71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자기방어적 양가성    | .01   | .15     | .003 | 2.86**             |
| 거부민감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         | .67   | .75     | .04  | 19.30***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관계관여적 양가성    | -.01  | -.11    | .003 | -1.78 <sup>+</sup>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관계관여적 양가성    | -.01  | -.13    | .003 | -2.23*             |
| 거부민감성 → 관계관여적 양가성         | .72   | .83     | .038 | 19.31***           |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β)임. 모형의 간접성을 위해 측정변인의 오차항과 통제변인(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그림에서 생략하였음.  
<sup>+</sup>  $p < .10$ .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그림 2.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

표 3.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308$ )

| 측정변인 간 경로  |             | 표준화된 경로계수 |       |        | SMC  |
|------------|-------------|-----------|-------|--------|------|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 대인관계문제    | .05       | .15** | .21**  | .796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 대인관계문제    | .29*      | .21*  | .50*   |      |
| 거부민감성      | → 대인관계문제    | .22*      | .33** | .56*   |      |
| 자기방어적 양가성  | → 대인관계문제    | .58**     |       | .58**  |      |
| 관계관여적 양가성  | → 대인관계문제    | -.12**    |       | -.12** |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 거부민감성     | .29**     |       | .29**  | .226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 거부민감성     | .20*      |       | .20*   |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 자기방어적 양가성 | -.04      | .22** | .18*   |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 자기방어적 양가성 | .15*      | .15*  | .30*   | .645 |
| 거부민감성      | → 자기방어적 양가성 | .75*      |       | .75*   |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 관계관여적 양가성 | -.11*     | .24** | .14*   | .563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 관계관여적 양가성 | -.13**    | .16*  | .03    |      |
| 거부민감성      | → 관계관여적 양가성 | .83*      |       | .83*   |      |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β)임,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결과임,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sup>\*</sup>  $p < .05$ . <sup>\*\*</sup>  $p < .01$ .

도는 거부민감성(부:  $\beta = .29$ ,  $p < .001$ ; 모:  $\beta = .20$ ,  $p < .05$ )에, 거부민감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 $\beta = .75$ ,  $p < .001$ )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beta = .83$ ,  $p < .001$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 = .58$ ,  $p < .001$ ),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2$ ,  $p < .01$ ).

다음으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표 3 참조). 그 결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부:  $\beta = .15$ ,  $p < .01$ ; 모:  $\beta = .21$ ,  $p < .05$ ). 또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효

표 4. 개별 간접효과와 유의도

(N = 308)

| 개별 간접효과 경로                              | B       | 간접효과와 90% CI  |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대인관계문제             | .004**  | .002 ~ .005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1   | -.004 ~ .002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관계관여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1**  | .000 ~ .002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대인관계문제             | .002*   | .001 ~ .004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5*   | .002 ~ .009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관계관여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1**  | .000 ~ .002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7**  | .004 ~ .010   |
| 부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관계관여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2** | -.003 ~ -.001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5*   | .002 ~ .008   |
| 모 거부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관계관여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001** | -.002 ~ .000  |

\*  $p < .05$ . \*\*  $p < .01$ .

과( $\beta = .33, p < .01$ ),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부:  $\beta = .22, p < .01$ ; 모:  $\beta = .15, p < .05$ ),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부:  $\beta = .24, p < .01$ ; 모:  $\beta = .16, p < .05$ )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내생변수가 외생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의 79.6%를 설명하였으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거부민감성의 22.6%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각각을 64.5%, 56.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마지막으로, 개별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개별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 = -.001, p > .05$ ), 그 외 모든 개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02 \sim .007, p < .05 \sim .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만 19 ~ 25세 남녀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경험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민감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회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모두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윤혜영, 강지현, 2015), 혹은 대학생이 회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이 각각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돌봄이 어머니의 돌봄보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설명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이 회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 중 아버지의 돌봄만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문헌진과 박희현의 연구(2022)와는 대조를 이룬다. 문헌진과 박희현(2022)은 아버지의 돌봄만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표본 중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아 성인 초기 부녀 관계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는 표본을 이루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유사하여, 이성 부모와 자녀 간 관계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천순미, 2023; Morman & Floyd, 2002; Khaleque & Rohner, 2012),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며(Bornstein & Putnick, 2016; Pleck, 2012), 일상적인 돌봄을 포함한 자녀 양육 시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여전히 많은 편으로(안미영, 최지은, 2020; 이영환, 2012), 자녀와 더욱 높은 빈도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내면화된 수치심(윤혜영, 강지현, 2015), 내현적 자기애(강지연, 진미경, 2018), 분리개별화(오남경 등, 2012)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러 매개변인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모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나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도 높았다는 선행 연구(구세정, 송미경, 2018; Erozkhan, 2009; Ibrahim et al.,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생애 초 부모의 지속적인 거부는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타인과 세상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내적 작동 모델 또는 왜곡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하며(Holmes, 1993; Rohner, 2021), 자녀의 거부민감성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Araiza, Freitas, & Klein, 2019; Feldman & Downey, 1994).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어,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윤희경, 윤형식, 2014; 정소현, 양난미, 2018; 최연재, 신나나,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은 타인이 보내는 거부 단서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 상황에서 적대감이나 공격성, 타인에게 지나친 순응, 침묵, 회피, 위축 등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여(Ayduk, Downey, Testa, Yen, & Shoda, 1999; Downey, Feldman, Ayduk, 2000;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London, Downey, Bonica, Paltin, 2007),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시절 부모의 돌봄 수준을 낮게 보고하는 대학생들이 더 높은 거부민감성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지윤, 진미경, 2019)와도 일치하는데, 성인기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생애 초 부모와의 관계 및 그로 인해 형성된 정신적 표상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Hazan & Shaver, 1987; Nosko, Tieu, Lawford, & Pratt, 2011). 거부민감성의 초기 연구자인 Feldman과 Downey(1994)는 거부민감성을 생애 초 거부 경험의 내재화된 유산(internalized legacy)으로 표현하며, 어린 시절의 거부 경험에서 비롯된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이후 대인관계 내 어려움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Downey & Feldman,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이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왜곡된 정신적 표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 자녀가 지각하고 주관적으로

경험한 양육태도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로분석 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근접하였으며( $\beta = -.11, p < .10$ ),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통한 효과 분해 시에는 두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eta = -.11, p < .05$ ),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했다고 판단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 결과(정소영, 강수운, 이동훈, 2020)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는 부모의 정서표현 및 조절 행동을 관찰하고 모델링하거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킨다(Morris et al., 2007; Morris, Criss, Silk, & Houlberg, 2017; Saarni,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정소영, 강수운과 이동훈의 연구(2020)에서는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아버지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만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방어적 양가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정서

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들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 역량 발달을 위해 보다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적 분위기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Denham, 1998; Krause et al., 2003; Morris et al., 2007; Paivio & Laurent, 200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나 정서 코칭과 같이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가정 고유의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역량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Darling & Steinberg, 1993;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Siegler, Saffran, Eisenberg, DeLoache, & Gershoff, 2003).

다음으로, 대학생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단일요인으로 보았을 때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용희, 2014)를 확장하며,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대인관계능력이나 이성 관계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이건화, 양난미, 2018; 이경희, 김봉환, 2010),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는 연구(이효원, 정남운, 2021)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발생하는 동기에 따라 구분한 연구를 토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 따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무능감이나 정서표현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는 회피적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타인과의 관계성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주체적 동기를 반영한다. Glazer(2020)는 정서표현의 역제가 때로는 감정 표현의 충동을 조절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Saarni(1999) 역시 감정 표현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을 자제하는 능력이 대인관계적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나 억제가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본 연구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타인과의 관계를 증시하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 비교적 적응적일 수 있고, 그만큼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회상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낮아졌으며, 이는 높은 대인관계문제 수준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학생이 회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높아졌고, 이는 높은 대인관계문제 수준으로 이어졌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낮아졌고 이는 높은 대인관계문제 수준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통해 모두 대인관계문제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으나, 이들 경로는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동기 시절 부모로부터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을 경험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동기는 약해지는 한편, 정서표현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서표현 억제 경향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손일영, 김해란, 2018). 이와 관련하여,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표현의 규준을 습득하고(Morris et al., 2007), 수용적인 양육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를 모델링하지만(Rohner, 1986), 거부적인 양육 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게 되어 대인관계에 일부 도움이 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방향

이 상반되는 비밀관적 매개효과(김하형, 김수영, 2020)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낮아지는 직접 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관계관여적 양가성 간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간접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에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발달에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자녀들은 정서적 역량에 손상을 입으며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낮아질 수 있는 동시에(손일영, 김해란, 2018),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로 인해 높아진 거부민감성은 개인이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동기화시킴으로써(안선경, 정여주, 2016; 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과도한 정서표현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최해연, 민경환,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부적 양육이 자녀의 성장과 대인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녀가 이후 적응에 필요한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부족한 만큼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부모의 거부가 미치는 다면적 영향력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순차적으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졌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혜원, 이지연, 2020; 송준현, 백용매,

2018; 최연숙, 홍혜영, 2016; 최혜경, 장유진, 2020; 황화정, 권은아, 전소현, 김근향, 2022) 혹은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김진이, 김향숙, 2016)와 일치한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면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신념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Laghai & Joseph, 2000),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대한 치료적 접근 시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찰을 돕는 과정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학생이 보고한 과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어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이라는 내적 특성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회상한 부모의 양육태도, 심리 및 행동적 특성이 현재 시점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자료를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에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변인 간 관계를 제외한 모든 주요 연구변인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주요 연구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대상을 다원화하여 변인 간 관계가 과대추정되는 오류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이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측정 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부모와의 관계가 양육 경험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수용-거부 이론(Rohner & Lansford, 2017)에 따르면, 거부민감성 등 개인의 부적응적 성격특성은 생애 초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의해 발달할 수 있

나, 전 생애 가운데 또래나 성인기 친밀한 타인의 거부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Beeson, Brittain, Vaillancourt, 2020). 또한, 아동기 시절 부모의 지속적인 거부를 경험했더라도 부모 외 타인의 지지와 수용 경험을 통해 역기능적 양육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강민희, 2023; 백승아, 구분용, 201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외 의미 있는 타인의 거부가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부모의 거부적 양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제 변인으로서 대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추후에는 대학생 본인의 수입이나 가정의 월소득 등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개인 내적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생애 초 부모로부터 경험된 거부가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해 각각의 영향력을 탐색한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서로 다른 기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외상이나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대학생이 경험한 거부적 양육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험한 아동기의 거부적 양육 또한 대학생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를 확장한 한편, 부모와 자녀의 장기적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인 애착 유형과 비교하여 개입 및 변화가 비교적 용이한 양육태도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수용

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의 기초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민희 (2023).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청소년 정서적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또래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1), 81-106.  
<https://doi.org/10.21509/KJYS.2023.1.30.01.81>
- 강지연, 진미경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3), 489-509.  
<https://doi.org/10.13049/kfwa.2018.23.3.5>
- 구세정, 송미경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1-21.  
<https://doi.org/10.33770/JEBD.34.1.1>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0(1), 38-63.  
<https://doi.org/10.13049/kfwa.2018.23.3.5>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병건, 김현아 (2020). 중국 조선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2), 185-205.  
<https://doi.org/10.35151/kyci.2020.28.2.009>
- 김성희, 박경희 (2008). 대학생 대인관계 조화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9(2), 375-389.  
<https://doi.org/10.15703/kjc.9.2.200806.375>
- 김영환, 권정혜, 홍상환, 진유경, 조용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https://doi.org/10.15842/kjcp.2002.21.2.009>
- 김용희 (2014). 대학생의 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1), 291-316.
- 김윤영, 최윤정, 현혜순 (2024). 대학생의 불안 애착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8), 157-167.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18.157>
- 김윤지, 최가희 (2020).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41(2), 1-19.  
<https://doi.org/10.30593/JHUC.41.2.1>
- 김주연, 성태훈, 김지혜, 신민영 (2014).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주의력 조절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21-37.
- 김지윤, 진미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355-378.  
<https://doi.org/10.21509/KJYS.2019.04.26.4.355>
- 김진이, 김향숙 (2016). 대학생의 배척민감성과 분노억압/분노조절의 관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1), 87-103.
- 김태연, 최은실 (2022).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2), 73-91.  
<https://doi.org/10.35574/KJDP.2022.6.35.2.73>
- 김하형, 김수영 (2020). 비밀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https://doi.org/10.22257/kjp.2020.3.39.1.91>
- 김혜원, 이지연 (2020).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억제와 수동적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3), 145-165.  
<https://doi.org/10.16881/jss.2020.07.31.3.145>
-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내재한 젠더 위계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맞벌이 중간 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1), 1-39.  
<https://doi.org/10.21478/family.26.1.201403.001>
- 문현진, 박희현 (2022).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5(1), 59-81.  
<https://doi.org/10.17641/KAPT.25.1.4>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https://doi.org/10.23844/kjcp.2017.02.29.1.103>
- 박서정, 강문선, 이영순 (2019).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6(4), 41-59.  
<https://doi.org/10.35734/karp.2019.26.4.003>
- 박소은, 남은영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89-103.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백수현, 이영순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385-400.  
<https://doi.org/10.15703/kjc.14.1.201302.385>
- 백승아, 구본용 (2018).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6(1), 125-146.  
<https://doi.org/10.35151/kyci.2018.26.1.007>
- 빙효은, 김은정 (2021).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97-116.  
<https://doi.org/10.22831/kap.2021.13.1.005>
- 손일영, 김해란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115-140.  
<https://doi.org/10.21509/KJYS.2018.01.25.1.115>
- 송준현, 백용매 (2018).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관계에서 공격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1), 1-25.  
<https://doi.org/10.15842/CPKJOURNAL.PUB.4.1.1>
- 송하나, 최경숙 (2010). 기질적 정서표현성의 안정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93-107.
- 송희원, 최성열 (2012). 빈곤 여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3), 651-672.
- 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31-151.
- 안미영, 최지은 (2020). 젠더 전사인자?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 여성경제연구, 16(4), 19-42.
- 안선경, 정여주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 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분리불안과 합입불안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19(1), 85-102.
- 우수희, 송근혜, 조규판 (2012).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59-80.
- 원미화, 신선화 (2019).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2), 525-534.  
<https://doi.org/10.15207/JKCS.2019.10.12.525>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유지은, 박성옥 (2017). 배척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인문사회 21, 8(5), 815-830.  
<https://doi.org/10.22143/HSS21.8.5.46>
- 윤혜성, 박지선 (2024).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9(2), 131-146.  
<https://doi.org/10.18205/kpa.2024.29.2.001>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윤희경, 윤형식 (2014).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논총, 16, 75-100.  
<https://doi.org/10.31625/issdoi.2014..16.75>
- 이건화, 양난미 (2018).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2), 83-105.  
<https://doi.org/10.15703/kjc.19.2.201804.83>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y, 이상민 (2020).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실패내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2), 175-185.  
<https://doi.org/10.15207/JKCS.2020.11.2.175>
- 이순희 (2024). 대학생의 대인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 플로리싱의 구조적 관계. 방과후학교연구, 11(3), 1-29.
- 이영환 (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원, 정남운 (2021).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1-12.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4.1>
- 정성란 (2020).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221-242.  
<https://doi.org/10.35151/kyci.2020.28.1.010>
- 정소영, 강수운, 이동훈 (2020). 아버지의 정서표현 및 정서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치료연구, 12(2), 163-184.
- 정소현, 양난미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37-159.  
<https://doi.org/10.15703/kjc.19.5.201810.137>
- 정유지 (2022). 내면화된 수치심이 연인관계 내에서의 관계

- 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 불안정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4), 993-1008.  
<https://doi.org/10.22143/HSS21.13.4.70>
- 정은, 윤현경, 정미라 (202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와 학업탄력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6), 381-396.  
<https://doi.org/10.22143/HSS21.13.6.26>
- 정태연, 허성호, 한민, 감기택, 최훈, 이승진, 박준성, 임남연, 황순택, 박준호, 김명찬, 이수정, 김재경 (2019). *현대심리학개론*. 서울: 솔과학.
- 조성경, 최연실 (2014). 남·녀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2(1), 53-74.  
<https://doi.org/10.21479/kaft.2014.22.1.53>
- 천순미 (2023).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4(2), 819-834.  
<https://doi.org/10.22143/HSS21.14.2.57>
- 최연숙,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4), 295-311.  
<https://doi.org/10.15703/kjc.17.4.201608.295>
- 최연재, 신나나 (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논총*, 35(2), 205-235.  
<https://doi.org/10.16935/ejss.2019.35.2.007>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https://doi.org/10.21193/kjspp.2007.21.4.004>
- 최혜경, 장유진 (2020).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2(1), 1-17.  
<https://doi.org/10.35185/KJET.12.1.1>
- 하태희 (2019). 일개 도시 대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생활스트레스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319-326.  
<https://doi.org/10.14400/JDC.2019.17.5.319>
- 한가희, 이인혜 (2016).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683-697.  
<https://doi.org/10.17315/kjhp.2016.21.4.001>
- 홍상환,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 김영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황민정, 김윤희 (201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5), 17-29.  
<https://doi.org/10.5723/kjes.2018.39.5.17>
- 황화정, 권은아, 진소현, 김근향 (2022).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7(3), 321-328.  
<https://doi.org/10.21097/ksw.2022.8.17.3.321>
- Alden, L., Wiggings, J., & Pincus, A.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s*, 55(3-4), 521-536.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088>
- Araiza, A. M., Freitas, A. L., & Klein, D. N. (2019). Social-experience and temperamental predi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A prospective stud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6), 733-742.  
<https://doi.org/10.1177/1948550619878422>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7.00016.x>
- Ayduk, Ö.,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https://doi.org/10.1521/soco.1999.17.2.245>
- Ayduk, Ö.,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11>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eeson, C. M., Brittain, H., & Vaillancourt, T. (2020). The temporal precedence of peer rejection,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and aggression across adolescenc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1(5), 781-791.  
<https://doi.org/10.1007/s10578-020-01008-2>
- Birn, R. M., Patriat, R., Phillips, M. L., Germain, A., & Herringa, R. J. (2014). Childhood maltreatment and combat posttraumatic stress differentially predict fear-related fronto-subcortical connectivity. *Depression and Anxiety*, 31(10), 880-892.  
<https://doi.org/10.1002/da.22291>
- Bornstein, M. H., & Putnick, D. L. (2016).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ractices with their daughters and sons in low-and-middle-income countries. *Monographs of the*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1(1), 60-77.  
<https://doi.org/10.1111/mono.1222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ozolino, L. (2017). *The neuroscience of psychotherapy: Healing the social brain*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https://doi.org/10.1037/0033-2909.113.3.487>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 Doorn, K. A., McCollum, J., Silberschatz, G., Kealy, D., & Snyder, J. (2021). Interpersonal and social functioning among psychotherapy patients: The indirect effect of childhood advers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9(10), 747-752.  
<https://doi.org/10.1097/nmd.0000000000001373>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0.tb00003.x>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https://doi.org/10.1037/0022-3514.75.2.545>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u, X., Ding, C., Xiang, G., Li, Q., Liu, X., Xiao, M., Song, S., & Chen, H. (2022). Rejection sensitivity and reactive aggression in early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and maladaptive coping. *Psychological Report*, 127(2), 786-806.  
<https://doi.org/10.1177/00332941221125771>
- Eisenberger, N. I. (2015). Social pain and the brain: Controversies, questions, and where to go from he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 601-62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213-115146>
- Emmons, R. A. (1989). The personal striving approach to personality. In L. A. Pervin (Ed.),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87-126). Hillsdale, NJ: Erlbaum.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https://doi.org/10.1037/0022-3514.68.5.947>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1-14.  
<https://doi.org/doi/10.2224/sbp.2009.37.1.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George, D., & Mallery, P. (2019). *IBM SPSS statistics 25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6th ed.). New York: Routledge.
- Giovazolias, T., & Paschalidi, E. (2022).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fear of intimacy in emerging adulthood a moderated-medi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81(1), 1-12.
- Glazer, T. (2020). To express or not to express? Ambivalence about emotional expression. In B. Brogaard & D. E. Gatzia (Eds.),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ambivalence* (pp. 175-196). New York: Routledge.
- Goldin, P. C. (1969). A review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71(3), 222-236.  
<https://doi.org/10.1037/h002701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5.2.348>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Holmes, J. (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W. W. Norton.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5.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Hussain, S., Alvi, T., Zeeshan, A., & Nadeem, S. (2013). Perceived childhood paternal acceptance-rejection among adults. *Journal of 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Pakistan, 23*(4), 269-271.
- Ibrahim, D. M., Rohner, R. P., Smith, R. L., & Flannery, K. L. (2015). Adults' remembrance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in childhood predict current rejection sensitivity in adulthoo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4*(1), 51-62.  
<https://doi.org/10.1111/fcsr.12119>
- Joseph, S., Williams, R., Irwing, P., & Cammock, T. (1994).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869-875.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231-3](https://doi.org/10.1016/0191-8869(94)90231-3)
- Kagan, J. (1978). The parental love trap. *Psychology Today, 12*, 54-91.
- Kennedy-Moore, E., & Watson, J. C. (1999).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 Khaleque, A., & Rohner, R. P. (2012). Pancultur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ults: A meta-analytic review of worldwide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5), 784-800.  
<https://doi.org/10.1177/0022022111406>
- Khaleque, A., Uddin, M. K., Hossain, K. N., Siddique, M. N. E. A., & Shirin, A. (2019).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in childhood predic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ulthood. *Psychol Stud, 64*(4), 447-454.  
<https://doi.org/10.1007/S12646-019-00508-Z>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and Neglect, 27*(2), 199-213.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
- Kross, E., Egner, T., Ochsner, K., Hirsch, J., & Downey, G. (2007). Neural dynamic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6), 945-956.  
<https://doi.org/10.1162/jocn.2007.19.6.945>
- Laghai, A., & Joseph, S. (2000).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on factor structure, convergent validity and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3*(3), 381-384.  
<https://doi.org/10.1348/000711200160598>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Ronald Press.
- LeDoux, J. (1998). *The emotional brain: The mysterious underpinnings of emotional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Leidy, M. S., Schofield, T. J., & Parke, R. D. (2013).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N. J. Cabrera, & C. S. Tamis-LeMond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51-167).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130157.003.0010>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7.00531.x>
- Lucas-Molina, B., Quintanilla, L., Sarmiento-Henrique, R., Martín Babarro, J., & Giménez-Dasí, 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knowledge in preschoolers: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6), 5726.  
<https://doi.org/10.3390/ijerph17165726>
- Mongrain, M., & Vett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24>
- Morman, M. T., & Floyd, K. (2002). A "changing culture of fatherhood": Effects on affectionate communication, closeness, and satisfaction in men's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and their son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6*(4), 395-411.  
<https://doi.org/10.1080/10570310209374746>
- Morris, A. S., Criss, M. M., Silk, J. S., & Houlberg, B. J. (2017). The impact of parenting on emotion regulat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4), 233-238.

- <https://doi.org/10.1111/cdep.12238>
- Mo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Murphy, B.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 Guthrie, I. K. (1999). Consistency and change in children's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5(3), 413-444.
- Nosko, A., Tieu, T. T., Lawford, H., & Pratt, M. W. (2011).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attachment styles, and romantic narratives in emerg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645-657.  
<https://doi.org/10.1037/a0021814>
- Paivio, S. C., & Laurent, C. (2001).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Reprocessing memories of childhood abuse. *Psychotherapy in Practice*, 57(2), 213-226.  
[https://doi.org/10.1002/1097-4679\(200102\)57:2%3C213::aid-jclp7%3E3.0.co;2-b](https://doi.org/10.1002/1097-4679(200102)57:2%3C213::aid-jclp7%3E3.0.co;2-b)
- Parke, R. D.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https://doi.org/10.1300/J002v29n02\\_04](https://doi.org/10.1300/J002v29n02_04)
- Pietrzak, J., Downey, G., & Ayduk, O. (2005). Rejection sensitivity as an interpersonal vulnerability. In M. W. Baldwin (Ed.), *Interpersonal cognition* (pp. 62-84). New York: Guilford Press.
- Pleck, J. H. (2012). Integrating father involvement in parenting research. *Parenting*, 12(2-3), 243-253.  
<https://doi.org/10.1080/15295192.2012.683365>
- Raby, K. L., Lawler, J. M., Shlafer, R. J., Hesemeyer, P. S., Collins, W. A., & Sroufe, L. A. (2015). The interpersonal antecedents of supportive parenting: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infancy to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51(1), 115-123.  
<https://doi.org/10.1037/a0038336>
- Raykov, T., Lee, C. -L., Marcoulides, G. A., & Chang, C. (2013). A commenta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l fit and saturated path mod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3(6), 1054-1068.  
<https://doi.org/10.1177/0013164413487905>
- Rohner, R. P. (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A worldwid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HRAF Press.
- Rohner, R.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15(1), 1-21.  
<https://doi.org/10.1177/106939718001500>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Sage.
- Rohner, R. P. (2021).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IPAR Theory) and evidence.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6(1), 1-65.  
<https://doi.org/10.9707/2307-0919.1055>
- Rohner, R. P., & Khaleque, A.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43-10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 P., & Lansford, J. E. (2017). Deep structure of the human affectional system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9(4), 426-440.  
<https://doi.org/10.1111/jftr.12219>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K.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in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78(1), 121-14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11.x>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https://doi.org/10.2307/1126465>
- Siegler, R., Saffran, J. R., Eisenberg, N., DeLoache, J. S., & Gershoff, E. (2003). *How children develop* (5th ed.). New York: Worth Publishers.
- Souza-Queiroz, J., Boisgontier, J., Etain, B., Poupon, C., Duclap, D., d'Albis, M. -A., Daban, C., Hamdani, N., Le Corvoisier, P., Delavest, M., Bellivier, F., Guevara, P., Leboyer, M., Henry, C., & Houenou, J. (2016). Childhood trauma and the limbic network: A multi-modal MRI study in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and control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0, 159-164.  
<https://doi.org/10.1016/j.jad.2016.04.038>
- Suffren, S., La Buissonnière-Ariza, V., Tucholka, A., Nassim, M., Séguin, J. R., Boivin, M., Singh, M. K., Folland-Ross, L. C., Lepore, F., Goltlib, I. H., Tremblay, R. E., & Maheu, F. S. (2022). Prefrontal cortex and amygdala anatomy in youth with persistent levels of harsh parenting practices and subclinical anxiety symptoms over time during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3), 957-968.  
<https://doi.org/10.1017/s0954579420001716>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Sun, J., Li, H., Li, W., Wei, D., Hitchman, G., Zhang, Q., & Qiu, J. (2014). Regional gray matter volume is associated with rejection sensitivity: A voxel-based morphometry study.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14, 1077-1085.  
<https://doi.org/10.3758/s13415-014-0249-z>
- Tomoda, A., Suzuki, H., Rabi, K., Sheu, Y. S., Polcari, A., & Teicher, M. H. (2009). Reduced prefrontal cortical gray matter volume in young adults exposed to harsh corporal punishment. *Neuroimage*, 47, T66-T71.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09.03.005>
- van Harmelen, A. L., van Tol, M. J., van der Wee, N. J., Veltman, D. J., Aleman, A., Spinhoven, P., van Buchem, M. A., Zitman, F. G., Penninx, B. W., & Elzinga, B. M. (2010). Reduced medial prefrontal cortex volume in adults reporting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Biological Psychiatry*, 68(9), 832-838.  
<https://doi.org/10.1016/j.biopsych.2010.06.011>
- Wang, Y., Zheng, Z., Wang, X., & Li, Y. (2022). Unraveling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college students in romantic relationships: A multiple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iatry*, 13, 982406.  
<https://doi.org/10.3389/fpsy.2022.982406>